

한국 축구 ‘도하 참사’…길 잃은 슈틸리케



고개숙인 한국축구 13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A조 한국과 카타르의 경기에서 2-3으로 패한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타르 원정 경기서 2-3 ... 33년만에 패배 ‘충격’

우즈벡에 1점 앞서 2위...러 월드컵 본선 빨간불

한국 축구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원정경기에서 카타르에 2-3으로 무릎을 꿇었다.

월드컵 최종예선 A조 2위인 한국은 4승1무3패(승점 13)를 기록해 3위 우즈베키스탄(4승4패·승점 12)과 간격을 벌리지 못했다.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행 티켓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은 8월31일 이란과 홈경기 에 이어 9월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예선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러시아행 직행 티켓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원정 4경기에서 1무3패의 부진을 이어간 한국은 최종예선 무득점 행진을 마감했지만, 승점 확보에는 실패했다.

카타르와의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3연승을 달리다가 5승2무2패를 기록하게 됐다. 한국이 카타르에 패한 것은 1984년 12월 아시안컵 본선에서 0-1로 진 이후 33년 만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황희찬(잘츠부르크)을 원톱으로 세우고 좌우 날개에 손흥민(토트넘)과 지동원(아우스부르크)을 배치한 4-1-4-1 포메이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8일 이라크전 때 스티브 수비수로 나섰던 ‘캡틴’ 기성용(스완지 시티)을 공격 2선에 배치한 공세적인 전술로 카타르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선제골은 카타르의 몫이었다. 한국은 전반 25분 수비 상황에서 광태위(FC서울)가 잔디에

미끄러져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카타르 역습 상황에서 최철순(전북)이 진로 방해로 경고와 함께 프리킥을 내쳤다.

키커로 나선 하산 알 하도스가 페널티아크 중앙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찬 공은 수비벽을 넘어 오른쪽 골망에 그대로 꽂혔다.

실상가상으로 손흥민이 전반 33분 공중볼 경합 후 땅을 짚은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치는 부상 악재가 겹쳤다.

손흥민 대신 ‘카타르 킬러’ 이근호(강원)가 교체 투입됐다. 이근호는 특유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전반 40분 역습 기회에서 왼쪽 측면을 돌파해 원발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들어 한국은 곧바로 추가골을 허용했다. 후반 6분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가 역습 기회에서 문전을 돌파한 뒤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한국의 골문을 꿰뚫었다.

지동원을 빼고 황일수(제주)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꾀한 한국은 ‘캡틴’ 기성용이 한 방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후반 17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이재성(전북)의 패스를 받아 중앙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카타르의 골문을 갈랐다. 이재성의 정교한 패스와 기성용의 탁월한 위치 선정이 만들어낸 추격 골이었다.

한국은 후반 25분 막내 황희찬의 골로 추격을 했다.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이근호가 올려준 크로스를 황일수가 헤딩으로 떨궈고 황희찬이 원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2-2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또 한 번 역습에 빠지곤 실점을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중간 순위

6월14일 현재						
A조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이란	6	2	0	8	20	
대한민국	4	1	3	1	13	
우즈베키스탄	4	0	4	0	12	
시리아	2	3	3	-1	9	
카타르	2	1	5	-4	7	
중국	1	3	4	-4	6	
B조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일본	5	2	1	9	17	
사우디아라비아	5	1	2	7	16	
호주	4	4	0	6	16	
아랍에미리트	3	1	4	-3	10	
이라크	1	2	5	-3	5	
태국	0	2	6	-16	2	

자료 / FIFA

/연합뉴스

허용했다. 후반 30분 선제골 주인공인 알 하도스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정확한 원발 슈팅으로 한국의 골문을 꿰뚫었다.

‘원정 무승 징크스’를 끝내 탈어내지 못하고 A조 최하위 카타르에마저 패다 한국이 러시아로 가는 길이 더욱 험난해졌다.

/연합뉴스

축구협회 오늘 기술위, 새 사령탑 영입할 듯

‘도하 참사’로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울리 슈틸리케(63) 축구대표팀 감독이 결국 짐을 쌀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르면 15일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술위원회(위원장 이용수) 회의를 열어 슈틸리케 감독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기술위 일정이 이미 잡혔으나 이용수 기술위원장 귀국 후 날짜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술위 개최 명목은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원정경기 평가이지만 사실상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을 위한 요식적 절차에 가깝다.

앞서 기술위는 지난 3월 월드컵 최종예선 중국전 0-1 패배와 시리아전 1-0 승리 때 부진한 경기력 탓에 감독 경질 여부를 논의했으나 카타르전까지 보고 판단하기로 유보했다.

그러나 ‘약체’ 카타르와의 경기에서도 2-3으로

져 한국 축구의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을 다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에 승점 1점 앞서 불안한 2위를 지키고 있지만, 슈틸리케 감독이 보여준 경기 내용으로는 본선에 가더라도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이 전반적인 분위기”라면서 경질에 무게를 실었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되면 8월 31일 이란과의 최종예선 9차전 홈경기까지 정해성 수석코치에게 감독대행을 맡긴 후 새로운 사령탑 영입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슈틸리케 감독은 ‘도하 참사’로 기록될 카타르전 패배 후 거취를 묻는 말에 “내가 답할 수 없다.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말하겠다”며 기술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카타르 선수들 ‘손흥민 조롱 의식’ 세리머니 논란

한국 축구대표팀에 2-3 패배를 안긴 카타르 대표팀이 ‘국왕 티셔츠’로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AFP통신은 카타르 선수들이 경기 전 국왕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그라운드에 나옴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카타르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의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을 앞두고 경기장에 나와 몸을 풀 때 국왕 셰이크 타미 빈하마드 알타니의 얼굴이 새겨진 흰 티셔츠를 입었다.

이 티셔츠는 경기 중에도 다시 한 번 등장했다. 카타르의 하산 알 하도스는 이날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자국 관중을 향해 이 티셔츠를 들어 보이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세리머니 이후 심판진이 무언가 논의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FIFA는 경기에서 선수들이 정치적인 상징이나 구호가 담긴 티셔츠를 입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후반 카타르 두 번째 골의 주인공 아크람 아피프는 골 성공 후 한쪽 팔을 상의 안에 집어넣고 구부리며 경례를 하는 묘한 세리머니로 논란을 샀다.

국내 팬들이 이것이 전반 30분 오른팔을 다쳐 그라운드 밖으로 나온 손흥민(토트넘)을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사인 볼트, 육상 접고 축구선수 데뷔?

9월 모바일 게임 ‘PES 2018’ 출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31)가 9월 영국에서 출시되는 모바일게임 ‘프로 아블루션 사커(PES) 2018’에 축구선수로 깜짝 출전한다.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육상선수’로 평가되는 그는 14일 SNS게임을 통해 자신이 축구선수로 데뷔하게 된다고 알렸다. 축구선수로 뛰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빼놓지 않았다.

그라운드 데뷔는 현역으로는 마지막 무대가 될 8월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난 직후가 된다.

그는 지난 11일 자메이카 킹스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육상대회 레이스스 그랑프리, 그를 위한 무대인 남자 100m에서 우승하고 고국 트랙과 작별

했다.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열렬한 팬으로 직업적으로 플레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볼트로서는 또 하나의 소원을 풀게 된 셈이다.

그러나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루이스 수아레스 등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한 축구 마니아들의 영원한 레전드 게임의 최신 버전을 주문, 사전에 등록한 ‘골수’ PES 팬들만 독점적으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은 14일 전했다.

PES 2018은 9월 14일 영국에서 발매된다.

볼트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지난해 리우 데자네이루올림픽 100m와 200m, 400m 계주 등에서 모두 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무주 태권도선수권 183개국 참가 ‘역대 최대’

난민 선수도 출전

오는 24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막하는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역대 최대인 183개국이 참가한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난민 선수도 출전한다.

WTF는 14일 “183개국에서 971명의 선수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등록 기준으로 올해 대회 참가 국가와 선수 모두 2009년 코펜하겐(덴마크) 대회의 142개국 928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다. 임원도 796명이 등록했다. 대회 심판은 100명(남자 73, 여자 27명)이다.

올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다. 1973년 시작해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것은 2011년 경주 대회 이후 6

년 만이자 역대 7번째다.

올해 참가 등록 선수 중에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란 출신 난민 여자 선수 디나 푸르요네스 란제루디도 포함됐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코트에 난민 선수가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는 리우올림픽 8체급(남녀 4체급씩) 금메달리스트 전원을 포함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리우올림픽 남자 68kg급에서 요르단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아흐마드 아부가우시, 80kg급에서 코트디부아르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셰이크 살라 시세가 같은 체급에 출전한다. 여자부에서는 여자 57kg급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제이든 존스(영국)가 역시 무주 대회 같은 체급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리우올림픽 49kg급과 67kg급 금메달리스트인 우

리나라의 김소희(한국가스공사)와 오희리(충천시청)도 각각 무주 대회 49kg급과 73kg급에서 다시 한번 ‘금빛 발차기’에 도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우올림픽 메달리스트 중 은퇴한 차동민(동메달)을 제외한 4명이 모두 무주 무대에 오른다. 여자부 김소희, 오희리뿐만 아니라 남자부의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김태훈(수원시청)과 이대훈(한국가스공사)도 각각 이번 대회 54kg급과 68kg급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24일 오후 4시 시작하는 개회식에서는 WTF와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 시범단이 참석해 역사적인 시범을 펼치고 합동 공연도 펼친다.

개회식에는 북한의 장웅 위원을 비롯해 유자이청(중국) 부위원장, 셰르미양 응(싱가포르)·다케다 쓰네카즈(일본) 위원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인사들과하계올림픽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ASOIF) 프란시스코 리치 비터 회장 등 국제 스포츠계 관계자들과 주한 대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